

“주 하느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 2,7)



최영식 마리아 신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

본 협회가 가톨릭의료인, 의료관계인들의 협의체로 출범한 후,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재현하고 우리의 사명인 ‘의료선교’ 활동을 위해 발간하기 시작한 협회지 Health & Mission이 어느덧 제12호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집위원의 열세와 기획의 한계를 드러내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해 온 것은 주님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지 이번 호에서는 생명윤리에 관한 특집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생명에 반하는 법으로 개정되어 가톨릭교회와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각계에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원이 생명에서 비롯되며, 올바른 생명의 목소리가 그리운 때에 교회는 생명의 존엄을 말하지만 그 목소리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존엄한 존재라고 느끼고 살아 왔는지 반문해 볼 일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우열을 가리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 볼 일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생명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전달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톨릭의료인의 가장 큰 소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생명을 존중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참 생명을 지키며 생명수호를 위해 성실히 생활하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2008년 상반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1월 새해 인사와 함께 김운희 주교님께 올해 협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고, 2월 대구가톨릭의료원에서 세계병자의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3월 회장단의 방북과 정기총회 그리고 4월에는 제21차 한·일 가톨릭의료기술교류위원회가 부산에서 있었고 5월에는 미국 가톨릭의료협회와 MOU(양해각서)를 맺어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제5차 가정간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1명의 단원이 몽골 다르항으로 해외 의료선교를 다녀왔으며, 북한 및 해외의료선교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많은 회원병원들의 협력을 받아 몽골 어린이들과 새터민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회의 활동에 늘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최영식